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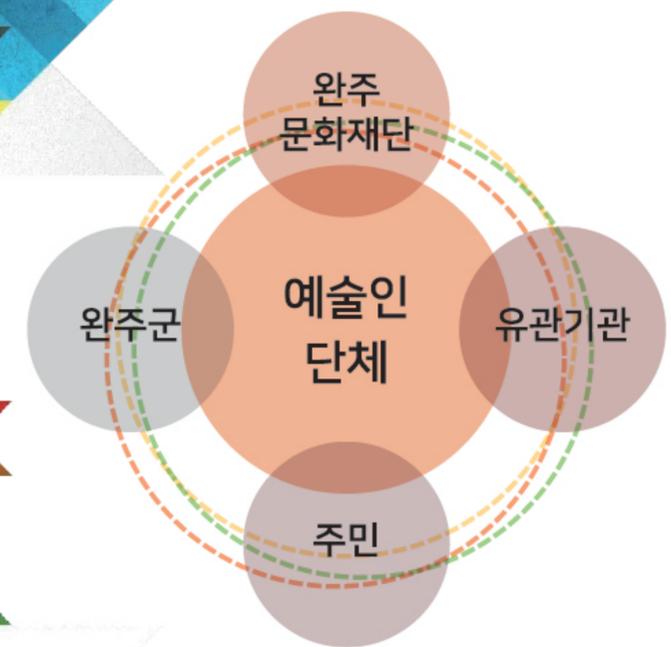
2023
전문
예술창작
지원사업
아카이브

2023
전문
예술창작
지원사업
아카이브



전문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완주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주기에 맞춘 단계별, 다년간 지원 구조로 운영하여
창작역량을 성장시키고 예술인의 활동이
군민들의 향유와 소비로 선순환되는
문화공존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준비지원

- 04_ 김수정 완주의 풍경을 담은 수채화 개인전
- 05_ 박선경 화가농부의 농장에서 그려진 에어룸토마토 collection
- 06_ 최무용 관계의 전개 개인전
- 07_ 최 섬 그림책 **엄마생각** 가제 원고제작
- 08_ 황세화 맑음, 오늘은 어때요?

결과지원

- 10_ 권원덕 안목 眼目 _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 12_ 김민경 안녕하세요
- 14_ 박지은 박지은 제23회 개인전
- 16_ 송지호 송지호 개인전
- 18_ 정미현 정미현 개인전 **소리의 은유**

다시지원

- 22_ 윤대라 피에타
- 24_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찾아가는 연극 **고물은 없다**

청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 27_ 김송이 완주9경 아이콘 활용 관광기념 목재 사무상품 개발
- 28_ 김예진 Love is all
- 29_ 정승준 현대무용과 타전공의 융합으로 창작물을 만들어 지역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 제작
- 30_ 조아란 키즈콘서트
- 31_ 허은서 만경광생 이야기

준비지원

김수정 | 박선경 | 최무용 | 최 섬 | 황세화



김수정 전북수채화협회 회원

프로필

2022 제4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2019 아무갤러리 개인전
2018 소양 오스갤러리 개인전, 전주
수목원 개인전
2015~2022 춘향대전,
갑오동학대전, 온고미술대전,
전라북도 미술대전, 한국수채화
공모대전 등
최우수상, 우수상, 위아트상, 특선,
장려상, 특별상등 다수 입상

기획의도

완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와
어반스케치로 작품을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이 많지만
완주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하여
완주 지역 주민들과 완주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감상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전시회를 준비하려한다.

작품소개

> 그 여름의 햇살 20F
완주군 이서면 어느 카페의 예쁜
장미를 그려보았다.

> 눈부신 여름 길
완주군 소양면의 이끼계곡을
수채화로 표현하였다.



그 여름의 햇살 20F



눈부신 여름 길



박선경 화가농부

프로필

2021 대한민국보태니컬아트대전
2022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세밀화전 참여
2020,2022 꽃달 '보태니컬아트로
피어나다' 전시회 참여

작품소개

에어룸토마토(씨를 받아 키우는
유럽토종토마토를 통칭)를 매년
농사짓고 있는 농부로서 씨를 받아
정식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와 모양을 가진 에어룸토마토의
다양성을 예술적으로 담아
보려하였다.



에어룸토마토 Heirloomtomatoes



믹스에어룸토마토 Mixedheirloomtomatoes



최무용 예술단체 NOMADE 대표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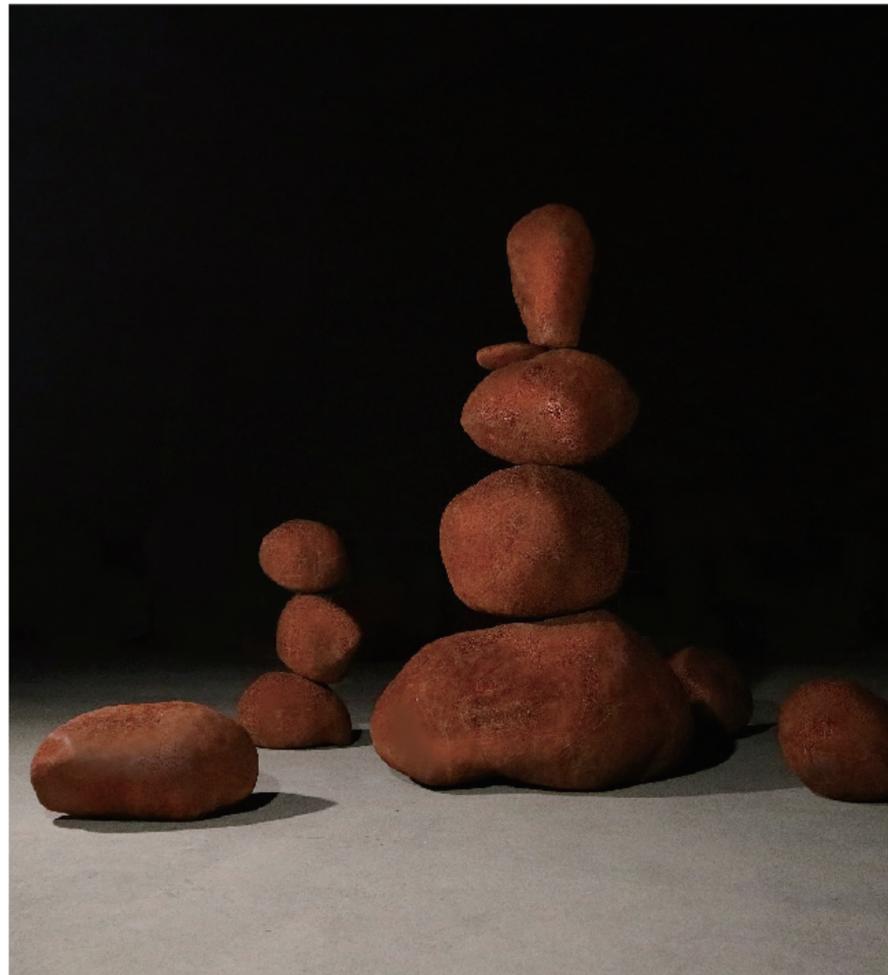
2018 초대전 '기계적 인간 관계, 인간적 기계 관계' (뉴벨백 미술관, 전주)
2019 선정작가전 '인과 관계' (꽃심 이동형 갤러리, 전주)
2022 기획초대전 'PHOENIX' (피닉스, 전주)
2022 초대전 '관계' (전북지방경찰청 아트홀, 전주)
2022 초대전 Relationship (향유갤러리, 전주)
2023 초대전 관계의 전개 (당림미술관, 아산)

기획의도

돌은 여러 물질들이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합되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역사성을 담고 현대에 머무르며 발전에 따라 분리되어 간다. 분리된 덩어리는 소유하고 있던 기억을 표출하며 사라져가고, 다른 득을 위하여 뭉쳐지기도 흩어지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빠른 발전에 의한 관계들은 득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연결되어 뭉쳐지며 하나의 덩어리로 남아 생존하게 된다.

작품소개

이 작품은 돌탑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돌탑은 신앙의 일종으로 무언가를 소원하며 쌓아 올라가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믿음을 형성해 간다. 쌓여진 각각의 돌들은 소원하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그 불안은 믿음 자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것 일수도 어떠한 다른 존재에 대한 것 일수도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인 나와 작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과 불안사이에 공존하는 현대 사회속의 문제들을 기록했다.



관계의 관계들
철 가변설치, 2022



최섬 동네책방, 그 섬에 가게 대표

프로필

2020 그림책 <쓸쓸하고 막막한 카멜레온>
2022 <주근깨 딸기> 작가

작품소개

작가의 세 번째 그림책 원고 <엄마 생강>(가제)는 봉동 생강 한해 농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린 생강이 엄마가 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린 작품으로 현재 2024년도 하반기 출간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



엄마 생강 원고

엄마 생강





황세화

프로필

2023 완주공예주간 '일상의 숨결
공예전'
2021~2023 마음빼기명상 청소년
프로그램 일러스트 제작
2022 '당신은 살아낼 자격이
있습니다.' 전자책 표지 제작
2022 USA, BROOKLYN, OITANYC
2016 대정요양병원 '나눔의 꽃'
재능기부자들과 도자기 벽화 설치
제작

작품소개

분홍 고양이를 그렸습니다.
당신을, 또 나를 기다려주는
엄마 같았습니다.
구름, 바람, 새, 꽃, 비
사람들, 그리고 나를 품어주는
엄마 같았습니다.
삶의 침표가 필요한 나에게
분홍고양이가
지금, 내마음을 물어봅니다.
'오늘, 어때요?'
"내 마음 맑음"



기다릴게요



맑음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맑음

결과지원

권원덕 | 김민경 | 박지은 | 송지호 | 정미현



권원덕 스튜디오 686 대표

프로필

2023 한중일공예전화이부동
해외문화홍보원
2022 예울 20주년 치유와 다독임의
공예
2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_R
레지던지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생의 도구
Tools for Conviviality
2021 서울공예박물관 개관특별전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기획의도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옛것에
사용했던 소재와 형태 재료를 새로운
안목으로 해석하여 작업을 한다.
물건을 보며 만든이의 고민을 찾는다.
나무가 가진 물성은 변하지 않으며
이런 고민은 옛것에 쌓여 있다.
옛것에서 찾고 싶은 것은 나무가 가진
기본적인 물성을 대하는 옛 장인들의
안목과 그 물성을 만지며 다루었던
기법과 고민들이다.
이런 작업들은 작가의 안목으로
옛것에 쌓여있던 것들을 찾아 작가의
것들을 더하는 작업이다. 안목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다르며 넓고, 깊고,
높은 안목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작품소개

> 법고창신 휴 2023-1

참죽나무와 낙동한 오동나무 판재로
만들어진 팔걸이 의자이다. 단순한 형태에
나무의 물성을 거스르지 않게 기능을 더했다.
판재로 제작하고 닫힌 공간이 없기에 보는
시선에 따라 선과 면으로 변화하며 나무의
결을 드러낸다.

> 법고창신 휴 2023-2

흑단, 호두나무 판재와 각재로 만들어진
의자이다. 다리부분에 박쥐문양의 풍혈,
반원모양의 팔걸이, 곡선의 등받이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의 물성을 거스르지
않게 기능을 더했으며, 다리부분의 판재와
팔걸이와 등받이의 각재가 보는 시선에 따라
선과 면으로 분할하며 공간속에 들어간다.



법고창신 휴 2023-1
94x50x57cm, 참죽나무, 오동나무



법고창신 휴 2023-2
73.5x53x75cm, 호두나무, 흑단



김민경

프로필

2020 전주 귀촌 후 문화예술단체
소리·점·빵 운영 중
2012 국립무용단 '슬픈빨강' 외 다수
무용음악 작곡
2008 클래식 공연 및 음반 외
현대음악 150여곡 작/편곡
2007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초빙대우교수, 강사 역임,
현수원대학교 객원교수
2007 비엔나국립음악대학교 작곡과
만장일치 최고점 졸업

작품소개

서울에서 전라도로.
역삼동에서 고산면으로.
대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전문지식에서 게임으로.
복잡한 궁금증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현대음악에서 조성음악으로.
미움에서 무관심으로.
나를 이루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변한다.
당산나무는 이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은 나무 주위에서 서로의
안녕을 바라며
그것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지켜나간다.
당신의 간절한 안녕을 나도 빌어주고
싶다....



공연사진



박지은

프로필

개인전 23회
 2023 박지은 옷칠화전
 (북한문화지구 누에아트홀)
 2022 삼례문화예술촌 삼례미술관
 기획초대개인전 (하랑갤러리)
 (완주군, 전라북도 후원)
 초대개인전 (서울), 363스튜디오
 갤러리아 기획초대개인전(경기)
 2021 나우리아트센터
 초대개인전(서울), 교동미술관
 박지은개인전(전주)

작가소개

담담하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풍경들

박지은 작가의 작업들은 대체로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들이 앞서고 갈수록 이러한 느낌들이 더욱 강화되는 것 같다. 이를 테면 삶의 완숙함 같은 것들이라 해야 할까, 점차 이득하고 그윽한 서정성이 무르익고 깊어지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특히나 근래의 주요 작업들이라 할 수 있는 '텃에나' '집으로' 연작들이 그러한 것 같은데 이들 작업들은 주제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형과 색, 구도 등에 있어 담담하고 짜임새 있는 표현들로 인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마음 속 오래된 그리움들마저도 자아내도록 하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음직한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 곧 누구나의 가슴 한편에서 계속해서 자리해온 어떤 원형적인 이미지, 내면의 풍경들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는 이들의 마음조차 울려 자연스럽게 공감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 민병직 (독립기획, 비평)



텃에 nest (409-04-23-014)
 145.5x112cm, Ottchil painting



텃에 nest (408-04-23-013)
 145.5x112cm, Ottchil painting on wood



송지호

프로필

개인전 36회 (서울, 전주, 대전, 인천)
 아트페어
 2023 서울조형아트쇼 (코엑스)
 2023 화랑미술제 (코엑스)
 2023 서울국제아트엑스포 (코엑스)
 2021~2023 K옥션
 2020~2022 서울조형아트쇼 (코엑스)
 2021 서울아트쇼 (코엑스)

작품소개

“일상-행복으로 꽃피다.” 전시는 11월 7일부터 12일 까지(6일) 복합문화공간 누에 아트홀 1,2,3관에서 진행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술 같은 이야기들은 익살스럽고 동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익살스러운 상상력은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며 함께 교감하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이 담겨있다. 서로 그림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가 느끼는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작품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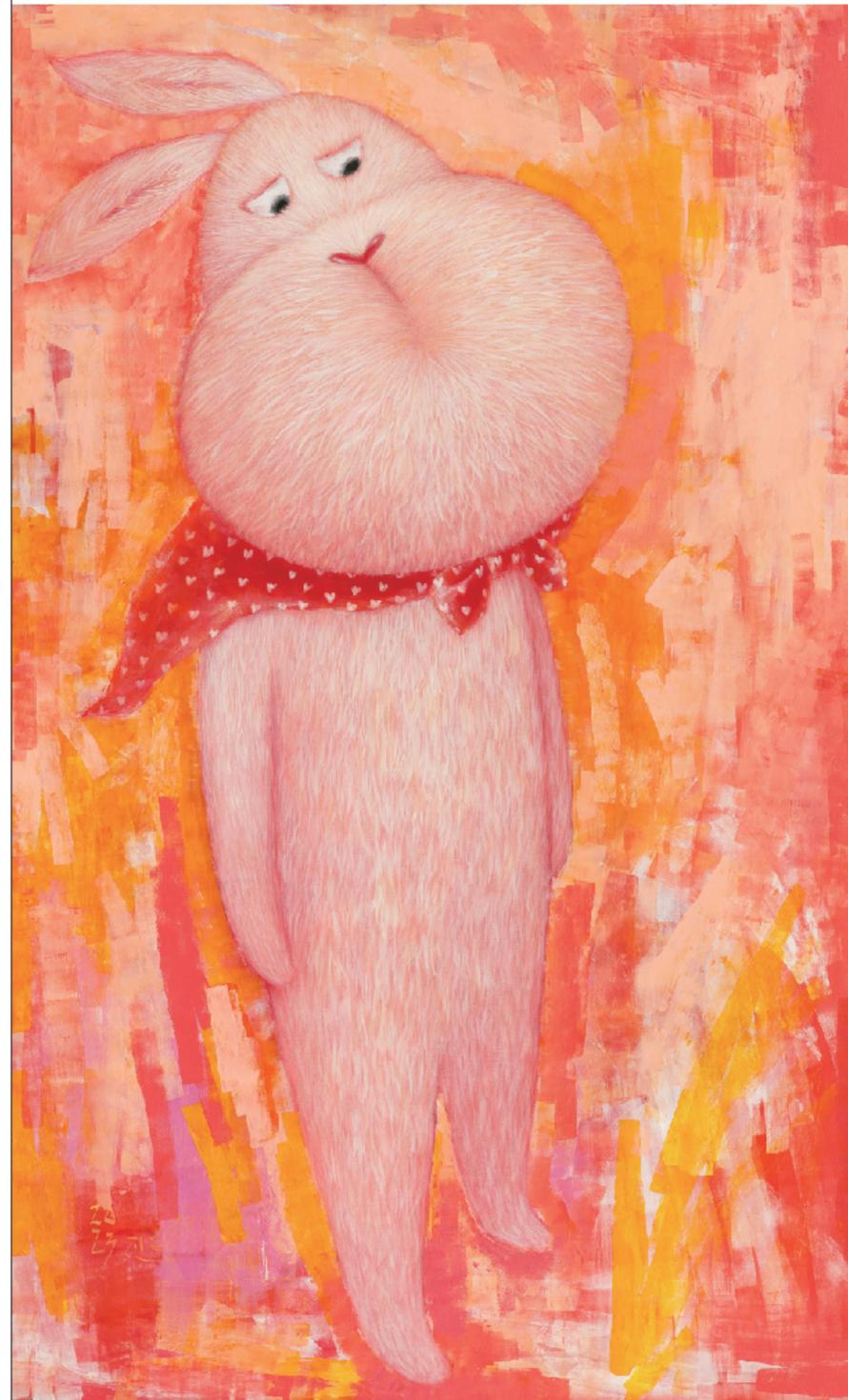


니맘 내맘
 80.4x80.4cm, acrylic on canvas, 2023



동행
 122.2x244.2cm, acrylic on canvas, 2023

사춘기
 122.2x200.1cm, acrylic on canvas, 2023





정미현

프로필

2023 時間
(개관10주년 누벨백미술관)
2022 동행, 다섯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2021 水墨 時色전
(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서울)
2021 수묵 동행 6인전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2021 墨香, 먹의 고향에서 피다
(누벨백미술관)

기획의도

이번 작업 주제인 '소리의 은유'는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통한 결합적 요소가 깃 들린 작업의 유형이다. 음악의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회화의 이미지로 시각화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 것의 골레에서 벗어나 무형의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는 작업의 몰입을 통한 새로운 현대 수묵의 작품세계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강태환선생님의 색소폰 프리뮤직 연주와의 콜라보 작업이 모태가 되어 주었다. 진실된 예술가의 삶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작업에 동행하여 주신 인연에 감사드린다.

작품소개

아홉 번째 전시회는 '소리의 은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률의 영감을 통한 느낌을 시각화해 나가는 'imaging of message' 작업이다. 음악이 주는 영감과 감흥의 메시지를 수묵의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작업의 과정 속에서 연주의 파동을 통해 영감을 일으키며 펼쳐내는 작업이다. 깊은 몰입과 교감은 생명력으로 작업과 마주하게 하며, 새로운 찰나의 울림으로 작업의 경계를 넘나들게 해주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나를 일깨워 주는 작업의 시간이었다.



IMAGING OF MESSAGE
340x150cm, 천예수묵, 2023



강태환 프리뮤직 & 정미현 수묵드로잉 퍼포먼스 시연



IMAGING OF MESSAGE
91x16.8cm, 천예수묵, 2023

다시지원

윤대라 |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윤대라

프로필

- 개인전
2023 대라썸 10 to 10 (plan C)
2023 피에타 (북한문화지구 누에 제1,2전시실)
- 기획전
2023 이 땅의 새 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
2023 세계혁명미술제 (삼성아트홀)
2023 project이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2023 인천아시아아트쇼 참여작가 (송도컨벤시아)

기획의도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 후의 시간 속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 그를 통하여 구축된 지극히 개인적인 신화가 생경한 화면 속에서 보편적 울림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선사하다.

피에타(Pietà)는 이탈리아어로 연민, 공경, 자비 등을 뜻하는데 통상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비탄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미술품을 일컫는다. 작가에게 피에타, 즉 자비와 연민의 대상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해 살아가는 작가가 알게 된 자연과 생명, 그러니까 흐드러진 풀이거나 묶여있는 동물들이며 그가 살아가는 삶과 사람이다.

작가 스스로 품은 상처와 연민을 성토크스럽고 몽환적으로 도상화하고 숙련된 기법과 기나긴 노동의 시간이 요구되는 전통 채색 기법으로 제작한 화면은 한국적 색채와 여러 종교의 다층적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전에 없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피에타 연작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재하는 역사와 신화를 끌어내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를 지켜내고 살아가며 존엄하고 숭고하게 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성화로 그려내고자 한다.



피에타



정상식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프로필

2023 연극 '고물은 없다' 제9회
완주문화예술제 개막공연 참여,
완주군 10개 읍·면사무소 순회공연,
군민 참여 연극막극 '홍도야
우지마라' 공연
2022 찾아가는 공연 '고물은 없다'
공연
2021 참암 이삼만 '묵향을 찾아서'
공연, 가족 뮤지컬 '삼례, 금와의 꿈'
공연

공연소개

연극 '고물은 없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고가의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이른바 약장수. 천공과 그의 약장수 무리는 평소처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묘기와 장기를 보여주며 장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싸구려 약을 명약이라고 소개하며 판매하고, 오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뒷정리하는 천공에게 붙잡힌다. 천공에게 인마기 판매를 도와달라는 모종의 부탁을 받은 오씨. 천공은 오씨의 품에 화장품, 세면도구 등과 함께 안마기를 억지로 안겨준다. 한편 오씨의 딸인 오경사는 파출소에 접수된 김씨 할머니 자살소통 사건으로 골치가 아프다. 동료 경찰이 증거품으로 가져온 건 천공이 팔려던 안마 기계. 오씨의 집에서 그 안마 기계를 본 오경사는 오씨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 오냐며 화를 내고 오씨는 산 게 아니라 받은 거라며 역정을 낸다. 파출소에 불려온 천공은 어쩐지 태도가 담당하기만 하고, 천공이 내민 핸드폰 속에는 오씨의 영상이 담겨 있는데... 오해로 사이가 틀어져 버린 모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식보다 낫다는 약장수 천공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작품은 포털 메인화면에 지나가던 인터넷 뉴스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 약장수의 물건을 사는 어르신들은 그 물건이 비싼 걸 알고도 구매한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는 경찰 단속에 붙잡힌 약장수를 위해 탄원서를 쓰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자식보다 낫다'면서요. 거기에서 이 연극은 시작했다. 과연 왜 한낱 사기꾼일 뿐인 그들을 배 아파 낫은 자식보다 낫다고 말할까. 고물, 흔히 이야기하는 낡고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낡고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많은 경험과 세월을 품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는 현시대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온, 그리고 우리 역시 맞게 될 노년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익숙해지고 당연해질수록 소중함은 잊게 된다. 이 연극을 통해 주름진 손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면 좋겠다.

이 공연은 완주문화재단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으로 제작, 운영되었습니다.
(사)한국연극협회 완주 지부 찾아가는 공연

고물은 없다

바려진 고물,
그 속에도 소중한 보물이 숨어있다.

•공연기간: 2023년 7월 3일~11일 •공연시간: 오전 10시 30분
▶ 7월 3일(월요일) 봉동행정복지센터 ▶ 7월 4일(화요일) 구이 술박물관
▶ 7월 6일(목요일) 상례행정복지센터 ▶ 7월 11일(화요일) 소양면행정복지센터



청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김송이 | 김예진 | 정승준 | 조아란 | 허은서



김송이 가구디자이너

프로필

2023 광주 갤러리 '함' 전주·광주 교류전 '木通'
2023 일본 나고야 목공 워크 해외 제자전
2023 소목장 소병진과 제자 동행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1 제4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특선 (소목분야)
2023 제4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소목분야)

활동내역

> 완주9경 아이콘

완주9경 아이콘활용 관광기념 목재 사무상품개발을 주제로 완주 9경을 답사하며 아이콘 제작에 쓰일 상징물을 찾아 아이콘스케치를 하였다.

> 원목거울

사무상품 개발에 맞게 조선시대 좌경을 모티브로 책상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원목 느티나무 거울을 제작 하였으며, 완주9경의 아이콘은 거울을 감쌀 수 있는 포장 패키지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완주9경
Wanju Nine Views

완주9경 아이콘



원목거울



김예진 바수니스트

프로필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오케스트라 과정 졸업
 2021~2023 김예진 바순 독주회
 2022 전북팝소오케스트라 협연
 2019 전주시립교향악단 협연
 2014 군산시립교향악단, 전북대학교 오케스트라 협연

활동내역

음악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는 효과는 긍정적이고 다양하다.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바수니스트 김예진이 선사 한 이번 공연은 클래식 장르를 벗어나 듣기 좋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연주자 본인이 그 간 음악생활을 통해 위로 받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노래한다. 바순 클라리넷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와, 동요로 마음을 전한다. 따뜻한 음색을 가진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 공연을 올린다.



정승준 현대무용가

프로필

2023 전국무용제 SOLO&DUET '너니까 오류'
 2023 대전 뉴댄스 국제페스티벌 '초침은 움직인다'
 2023 젊은 춤판 '초침은 움직인다'
 2022 SCF(서울 국제 안무페스티벌) '감정전달과정'
 2022 신인 춤판 '파일명 : 인간'

기획의도

완주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정승준 현대무용가는 프로젝트 무작판 팀 멤버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장소를 돌아다니며 뮤직비디오를 청년예술가들과 제작하였다.

활동내역

무작판의 '데고'는 흥타령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악기와 미디의 현대적 사운드를 활용해 현대·전통의 동시대성을 담아 대중음악적 선법과 화성에 얽은 국악 창작곡이다. 중모리장단 위에 시네마틱 드럼과 퍼커션을 더했고, 각 연주자의 파트에는 흥타령의 선율을 차용해 구성하면서도 색다른 맛과 함께 웅장한 에너지를 전한다. 원가사의 의미 대신, 현 시대적으로 재해석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무작판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악을 베이스로 미디 사운드를 섞어 만든 음악에 현대무용을 접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다양한 전공들이 뭉쳤기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원예술을 시도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정형화된 틀을 더 확장시켜 관객들에게 더 쉬운 예술로 다가가는게 팀의 모토이다.



데고



조아란 피아니스트

프로필

2023 키즈콘서트 '노는게 제일 좋아'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2023 리스트협회 강원지부
정기연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제임버홀)
2023 GWNU Klavier Society
정기연주회 (로스페이스 홀)
2022 키즈콘서트 '가을에 듣는
음악동화' (전주 한벽문화관)
2022 조아란 피아노 독주회
(서울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기획의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 콘서트로 친숙한 곡들(영화음악, 동요, K-POP 등)의 클래식 버전이지만, 엄격한 분위기가 아닌, 같이 즐기며 노래도 따라 부르며, 춤도 출수 있어 예술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실로폰, 멜로디언, 캐스터 넷츠도 사용하여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음악, 문화를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계기가 되어 줄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청년지원 선정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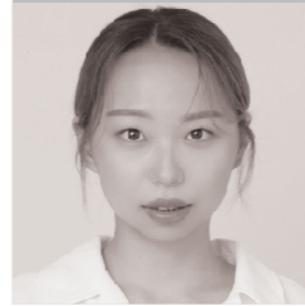


노는게 제일 좋아

2023.11.11(토) 오후 2시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주최 포이브(포티에이티뮤직) | 후원 완주문화재단



허은서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프로필

2016 홍익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
2020 복합문화지구 누에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구축사업 '삼례수달마을' 예술 참여
2020 복합문화지구 누에 난나비아 제1회 캠프 미니어처 제작 수업 진행
2020 익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디자인 업체 '바이비상' 근무
2020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익산 미래유산' 책 일러스트 작업

활동내역

만(경강)생이야기는 백성의 삶을 민생이라고 하고 만경강에 사는 친구들의 삶을 뜻하는 말로 수달, 고니, 황새, 수리부엉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만경강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네 친구의 일상은 어떨지,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 상상해서 네 컷의 만화로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왕이 민생을 들여다보 듯이 관람자는 민생을 들여다보며 소통하는 것이다.



2023
전문
예술창작
지원사업
아카이브

1판 1쇄 발행 2023년 12월
1판 1쇄 인쇄 2023년 12월

펴낸곳 원주문화재단

총괄 정철우
책임 송은정
기획·진행 예술진흥팀 이운주, 오다영
디자인 M&J 디자인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전화 063-262-3955
메일 dyciny@wfac.or.kr
홈페이지 www.wfac.or.kr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펴낸곳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